

장애학과 한국특수교육론 -한국장애학회의 창립에 즈음하여-

김 병 하(金炳廈)

대구대 명예교수

한국특수교육문제연구소 상임고문

1. 장애학(disability studies)이 한국에서 담론 의제로 떠오른 것은 아직 일천하다. 그럼에도 금년 5월에 「한국장애학회」(회장: 조한진)가 발족되고, 그 창립 학술발표회를 가진 것은 경하할 일이다. 첫 술에 배부를 순 없지만, 시작이 반이다. 학회 창립 발표회 제2부에서 “장애관련 학문과 장애학, 따로 또 같이”라는 주제로 특수교육 쪽에서는 강종구 교수(대구대 초등특교)가 “특수교육에 있어서 장애학의 현실과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했고, 이에 대해 우충완 교수(경인교대 외래교수)가 “장애학과 특수교육학의 유의미한 만남을 위한 논의”라는 주제로 패널 토론을 해주었다. 장애학과 특수교육학의 상생적(相生的) 만남을 위해 고무적인 일이다. 두 사람의 발제와 토론을 읽고, 평소 ‘한국특수교육론’ 정립에 관심을 가져온 필자의 입장에서 몇 가지 소회를 밝히고 그 공부 방향을 제기하고자 한다.

발제에서 강종구는 우리나라 특수교육학술 논문 가운데 주제에 ‘장애학’이라는 용어가 들어 있는 7편의 논문을 리뷰 했다. 주제에 ‘장애학’이라는 표현이 들어 있는 논문으로만 한정된 것은 그렇잖아도 우리나라 특수교육학계에서 장애학적 접근 논의가 극히 제한적인 터에 이런 식으로 걸러내다 보니 분석 자체는 편리하고 집약적일 수 있었을지 몰라도 너무 제한적인 문헌분석에 그치고 말았다.

하지만 이런 제한적 리뷰임에도 우리나라 특수교육학계의 장애학에 대한 접근 수준과 양상이 잘 드러나고 있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일단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한다. 근데 분석한 7편의 논문 중 4편의 논문은 외국에서 호랑이 잡는 이야기한 것들을 우리나라에 옮겨 놓은 데 불과하다. 그나마 민강기(2007) 등이 장애학적 관점에서 특수학교 교육과정을 비판적으로 접근한 게 돋보이고, 조원일(2012)은 장애학적 관점에서 우리나라 특수교육과 장애인복지 인식, 제도, 정책을 해석한 게 고작이다.

발제에서도 지적했듯이 한국 특수교육의 쟁점과 관련한 직접적인 연구(호랑이 굴에 뛰어드는 연구)들이 부족하다. 그 근처에서 맴돌고 있는 사람마저도 극소수라고 하니(연구자의 부족) 언제 호랑이와 맞장 뜰 용사가 나올까? 그나마 최근에 장애학을

공부한 신진 학인들이 있다니 그들의 신형 무기에 기대를 걸어 볼만하다. 하지만 그들이 우리나라 호랑이 굴(즉, 한국특수교육론의 정체성)의 지형과 호랑이 생태를 파악하기까지는 좀 더 기다려 봐야한다. 그들마저 부디 굴 언저리에서 서성이지 말기 바란다.

위 발제에 대한 토론에서 우충완은 발제에 대한 직접적인 논평보다는 장애학과 특수교육학의 의미 있는 만남을 위한 논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여기서 토론자가 장애학과 특수교육의 만남을 '비평적으로 만드는 것'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은 주목할 만하다. 여기 '비평적'이란 장애학과 특수교육의 만남을 단지 상호 보완적 관계로만 아니라, 상호 긴장된 관계를 통해 마침내 상생(相生)하는 길을 모색해 보고자 함일 터. 토론자의 논지를 요약하면 이렇다.

(1) 장애학적 관점은 반(反)헤게모니적, 장애당사자의 목소리와 경험 중시, 장애인과 비장애인간의 자기반영과 자기성찰의 중시, 통합적이고 열린 담론 지향, 협력과 연대의 중시. (2) 생물학적 장애와 사회화된 장애의 불가분적인 관계 속에서 장애학과 특수교육학의 만남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3) 장애학과 특수교육학이 서로의 만남을 통해 윈윈하는 이점을 확충해 가는 것. (4) 그럼에도 현실적으로 장애학과 특수교육학과의 유의미한 만남을 저해하는 갈등과 대립요소는 여전히 심각하다는 것. 마지막으로 (5) 장애학과 특수교육학의 만남이 가져다 줄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제기한다.

이 토론에서 장애학과 특수교육의 긴장된 만남을 통해 서로가 상생하는 길이 포괄적으로 잘 제시되어 있다. 문제는 한국의 역사적 현실에서 장애학과 특수교육학 담론이 어떻게 생산적으로 상호침투, 소통되게 하느냐는 것이다. 이렇게 하기 위해 새로운 바람이 일기를 필자 역시 절실히 염원하지만, 현실적으로 그 벽은 두껍고 높다. 특히, 우리나라 특수교육학계의 학풍은 내가 보기에 여전히 보수적이고 폐쇄적이다. 약 10년 전쯤 우리나라에서도 장애당사자 중심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할 즈음 특수교육법 제(개)정 쟁점에 대한 특수교육학계와 장애인운동계 쪽 발언의 간격을 목도하면서 필자는 양자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강이 흐르고 있음을 확인했다. 지금쯤은 조금 달라져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 간극은 여전히 거란 생각이 든다.

그 즈음 필자는 대구장애인연맹(대구 DPI) 대표로 한국장애인연맹 이사로 참여하면서 장애당사자 배제금지 원칙(Nothing about us without us) 담론에 상당히 경도 되어 있었음에도, 이 원칙을 특수교육 담론에 접목시킬 현실적 발판을 마련하기조차 어려웠다. 다만 원론적인 수준에서 특수교육 패러다임 이동이라는 큰 틀에서 장애학 입장에서 본 특수교육의 재구조화(restructuring) 방향을 제기하는 수준에 멈추고 말았다. 더욱이나 이번 한국장애학회 창립 발제에서 보니 그런 정도의 관심은 아예 논의에서 제외되고 말았다.

이제 더 미룰 수 없다는 나름의 절박한 심정에서 장애학 관점에서 한국특수교육

답론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지에 대한 필자의 구상을 다시 밝힘으로써, 후학들에게 빛진 부채를 지금이라도 얼마간 탕감 받고자 한다. 우리 특수교육학계에서는 장애는 개인의 병리적 문제이기에 개인의 비극으로 환원지을 수밖에 없다는 환원론에 깊숙이 침윤되어 있다. Skrtic 표현에 의하면, 미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극단적인 기능주의의 함정에 빠져 있는 격이다. 소위 이게 한국특수교육학계의 주류담론이다. 하지만 역사가 입증하듯, 학문 세계의 변화는 언제나 주변부의 목소리가 주도해 왔다.

2. 장애학의 관점에 의하면, 장애는 당대 사회가 가공한 사회적 병리문제이다. 즉, 장애는 원천적으로 개인의 병리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교육적으로 재생산된 ‘사회적’ 혹은 ‘사회화된’ 병리문제라는 게다. 하지만 장애문제는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딱 잘라서 보기에는 너무 심층적이고 복잡한 연기(緣起)로 얽혀 있다. 논점을 의도적으로 부각하기 위해 우리는 흔히 ‘장애’((disabilities)를 소위 개인 모델과 사회모델로 대칭 지우지만, 기실 장애문제는 엄연히 개인의 실존적 문제이자 궁극적으로 사회가 책임져야할 공동체적 문제이다. 장애에 대한 개인모델과 사회모델은 장애를 인식하는 입장을 반영하는 특정 모델로서 갈등적일 수밖에 없지만, 그 실천적 접근 과정에서는 오로지 나냐주의(or/either)가 아니라, 양자를 포섭하는 도도주의(both/and)를 따를 수밖에 없다. 이것은 곧 원효가 말한 ‘화쟁’(和諍)의 논리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장애학 담론에 기반을 둔 특수교육 실천은 ~from ~to, 즉 장애의 개인모델로부터 사회모델로의 패러다임적 전환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

아직도 한국의 특수교육 현실은 지나치게 장애의 개인모델 쪽으로 경도되어 있다. 장애자녀를 둔 부모의 95% 이상은 비장애인이고, 이들 부모는 자녀의 장애를 가정과 개인의 업보(業報)로 환원지우는 죄의식에 젖어 있다. 그런 심리적 상태에서 자녀의 장애를 물리적으로 교정·퇴치하는 일에 일차적 관심을 기울이게 되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장애의 개인모델 함정에 빠져들게 된다. 자녀가 자라면서 장애의 교정과 치료에 한계를 보이게 되면, 이때부터 대부분의 부모들은 내심 “우리 아이는 안 된다”는 부정적 체념에 갇힌다. 자녀의 ‘장애’를 보는 관점에서 부모로부터 발상의 전환이 와야 한다.

모든 인간은 지엄한 존재다. 우주가 탄생한 것은 약 140억 년 전의 일이고 이 우주 속에서 소위 빅뱅을 거쳐 지구에 생명체가 살기 시작한 것은 약 40억 년에서 37억 년 전으로 추정된다. 생명체가 생의(生意)를 가지고 거둬 진화하는 가운데, 자기의식을 가진 유일한 존재로 인간이 탄생한 것은 불과 200만 년 전의 일이다. 인간의 자의식(自意識)은 지난 200만 년 간 계속 진화한 끝에 ‘오늘’에 이른 것이다. 자의식을 지닌 생명체로서 인간은 만물의 영장으로 그 최정상에 올라와 있다. ‘지금 여기’의 모든 인간은 적어도 37억년 동안 계속 진화한 끝에 그 최정상에 이른 존재다. 하여 모든 인간존재는 지엄하다.

파스칼 뒤켄(Pascal Duquenne)이라는 다운증후군 지적장애인이 세계 최초로 남우주연상을 받은 영화 「제8요일」(The Eighth Day)은 제목 자체가 의미심장하다. 즉, 하느님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고 하루 쉬면서 생각해보니 뭔가 껍 아쉬운 감이 있어 8일째 지적장애를 세상에 내 보냈다는 게다. 아마 장애인과 함께 살아가는 인간들의 지혜와 인내심을 시험해 보기 위함이었을 터. 또, 시골 농학교를 배경으로 농세계(deaf world)와 청세계(hearing world) 간의 갈등과 만남을 주제로 한 「작은 신의 아이들」(Children of a Lesser God)이라는 영화 제목도 같은 맥락에서 그 함의를 이해할 수 있다.

『중용(中庸)』 첫 구절에는 인간 존재의 지엄함과 그 교육가능성을 다음처럼 커다랗게 내 걸고 있다.

天命之謂性(천명지위성)

率性之謂道(솔성지위도)

修道之謂教(수도지위교)

즉, 하늘이 명령하는 것이 이른바 인간의 성(性; 즉 human nature)이요, 이 본래성에 따르는 것이 이른바 인간이 가야 할 마땅한 길인 도(道; Tao/way)요, 이 도(길)를 끊임없이 닦아 나가는 과정이 이른바 교(教; education)라는 게다.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교육은 바로 ‘教-道-性-天’으로 이어지는 지엄한 명령에 의한 것이므로 우리가 마음대로 이리저리 바꿀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다.¹⁾ 하여 나는 진즉에 특수교육이 보육이나 치료가 아니라, 교육답기 위해서는 교육본질을 복원해야 한다고 했다. 말하자면 우리는 특수교육에서 본말전도(本末顛倒)를 경계해야 한다. 그래야만 특수교육은 변두리 교육이 아니라, ‘교육 중의 교육’이고 그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는 ‘교사 중의 교사’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우리가 ‘의사 중의 의사’를 명의(名醫; Doctor of doctors)라 하듯.

대부분의 특수교육교사들은 여전히 극단적으로 혹은 획일적으로 기능주의에 경도된 나머지 객관적으로 측정된 수치만으로 장애를 해독하는 데에 길들여져 장애아동의 드러난 장애(disabilities)만 보고 사람(human being)을 놓쳐버리곤 한다. 오죽하면 지적장애인의 자기권리 주장운동에서 그 슬로건을 ‘사람먼저’(People First)라 했을까. 말하자면 손가락 끝을 보고는 마치 달을 본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 그래서 교사들도 부모와 크게 다르지 않는 수준에서 “우리 아이들은 가르쳐 봤자 거기가 거기”라는 편견에서 헤어날 수 없다.

1) 듀이(J. Dewey)도 『경험과 교육』(Experience & Education, 1938)에서 교육은 자체의 내재적 개념으로 존이유로 존재해야지 교육 밖의 어떤 이즘(ism)을 위한 방편이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심지어 그가 주장하는 ‘진보주의’(progressivism)의 이즘에조차도 교육이 간혀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것은 듀이 나름의 교육본질 복원에 대한 깊은 통찰이다.

공자(孔子)는 ‘유교무류’(有敎無類)라 해서 교육에는 그 부류가 따로 없다고 했다. 즉, 인간교육의 가능성을 활짝 열어 놓았다. 지금도 타이완의 지적장애 특수학교에는 큰 돌 짝에 이 말을 새겨 놓고 있다. 불교에서 4섭(四攝) 가운데 마지막으로 ‘동사’(同事)라는 말이 있다. 가르치는 사람이 배우는 사람과 같은 일에 임한다는 게다. 이 말이 우리 특수교육에 주는 시사가 막중하다. 특수교사는 장애아동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특수한 자료와 방법을 동원해서 장애아동과 같은 수준에서 가르침을 수행해야 한다. 즉, 가르치면서 배우고, 배우면서 가르친다. 하여 여기 ‘동사’(同事)라는 말은 ‘교육다움’을 각아지른 듯이 반영하고 있다. 그래서 특수교육은 어려운 교육이다. 어려운 걸 어려운 줄 모르고 쉽게 일상화하려 드는 데에 문제가 있다.

이즈음 지적장애아교육에서 아동의 지적능력에 굳이 구애됨이 없이 성장과정에서 일반아동 못지않게 혹은 훨씬 인내심을 가지고 풍부한 경험을 제공해 주는 걸 강조한다. 듀이(Dewey)는 교육에서 경험이야말로 ‘영원한 현재의 과정’(ever-present process)이라 했다. 중요한 것은 교육적 경험을 얼마나 꾸준히 즐기 있게 제공하면서 함께 소통하느냐이다. 『중용』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배우지 않음이 있을지언정, 배울진대 능하지 못하면 도중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묻지 않음이 있을지언정, 물을진대 알지 못하면 도중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생각하지 않음이 있을지언정, 생각할진대 결말을 얻지 못하면 도중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분별(分辨)하지 않음이 있을지언정, 분별할진대 분명하지 못하면 도중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행하지 않음이 있을지언정, 행할진대 독실하지 못하거든 도중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남이 한 번에 능하거든 나는 백번을 하며, 남이 열 번에 능하거든 나는 천 번을 하십시오, 과연 이 호학역행(好學力行)의 도(道)에 능하게만 되면, 비록 어리석은 자라도 반드시 현명해지며, 비록 유약한 자라도 반드시 강건하게 될 것입니다(김용옥, **중용 인간의 맛**, 통나무, 2011, pp.256-257).

필자가 보기에 『중용』의 이 말은 바로 특수교육을 향한 경구(警句)다. “남이 한 번에 능하거든 나(우리)는 백번을 하며(人一能之己百之), 남이 열 번에 능하거든 나(우리)는 천 번을 한다(人十能之己千之)”는 말은 우리 특수교육인이 장애아동과 함께 ‘호학역행’(好學力行)하는 자세 혹은 태도를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런 지극한 노력의 경지를 『중용』에서는 ‘지성’(至誠)이라 했다. 장애아동에게 유용한 교육적 경험을 인내와 관용으로 거듭 즐기 있게 제공해주는 과정(process)에 특수교육의 존재이유와 목적은 내재한다.

장애학에서 모든 장애인은 관리의 대상에서 인권의 주체로 우뚝 서는 것을 강조한다. 그러기 위해 장애인 당사자가 앞장서 자기권리주장 대열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장애인 당사자가 주축이 된 한국장애인 운동사에서 그 주제는 ‘차별에 저항하라’

이다. 하여 언제(2005년경)부터인가 4.20 ‘장애인의 날’을 장애인계에서는 ‘장애인 차별철폐의 날’로 규정하여, “대한민국에 장애인 인권은 없다”며 투쟁결의대회를 지속적으로 펼쳐 왔다. 이런 투쟁의 결정체로 2007년에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기에 이르렀다. 우리나라 장애인운동사는 그 역사가 일천-불과 30년 정도-함에도 운동의 격렬성은 외국의 장애인운동 지도자들로 부터 주목을 받을 정도였다. 지금도 광화문 앞에서는 ‘장애등급제 철폐’ 투쟁이 2년이 넘도록 북미지역 인디언들이 기우제를 시작하면 비가 내릴 때까지 끝내지 않듯 그렇게 이어지고 있다.

김도현은 한국 장애인운동 20년(1987-2006)을 정리한 『차별에 저항하라』(2007)에서 우리나라 장애인운동의 현상과 과제를 이렇게 제기한다. 먼저 장애인의 구체적 삶에서 ‘비동시대성’을 지적한다. 우리나라는 압축발전의 과정에서 전근대-근대-탈근대가 공존하는 사회가 되었으나, 장애인의 삶은 여전히 전근대성을 헤어나지 못하는 ‘비동시대성의 동시성’을 문제 삼는다. 하지만 21세기에 신자유주의적 경쟁체제가 ‘체제’로 굳어져 가는 과정에서 “이런 비동시대성이 장애인 운동의 전진에 기여하는 조건이 될 수 있었던 시대는 끝나가고 있는 것”으로 운동의 한계성을 적시한다.

이어 그는 진보적 장애인운동의 생산적 지속성을 위한 과제로 현장 대중 공간의 개척과 그 기반확충, 장애문제를 적극적(변혁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담론의 생산, 그리고 장애인 운동이 ‘속도’의 문화에 대응해 ‘기다림(느림)’의 문화가 긍정적 가치로 적극 수용되게 하는 것을 제의한다. 여기서 장애인 운동의 생산적 지속성을 위한 성찰적 문제제기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장애인 운동에서 장애인·비장애인이 이분법적으로 대립하지 않고 함께 공감하는 대중적 기반을 확충하는 것, 그리고 장애문제를 당대 우리 모두의 현안문제로 공유할 수 있게 하는 장애담론의 생산은 절실하면서도 장기적 비전을 요하는 막중한 문제다. 이런 비전이 우리들 삶의 밑둥이 될 때, 장애인과 함께하는 ‘기다림’의 문화가 우리들의 구체적인 삶으로 착종될 게다.

3. 이 막중한 과제에 직면하여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할 건가? 먼저 우리의 구체적 현실 속에서 그 해답 혹은 가능성을 찾아보자. 언제나 그 가능성은 변방에서 꿈틀거린다. ‘장애해방’을 내걸고 학교 근처에도 가보지 못하고 집(구석)에 처박혀 있던 성인 장애인을 위한 야간학교 「노들장애인야학」이 문을 연지 스무 해가 되어, 그 이야기를 엮은 『그림에도 불구하고 수업합시다』(홍은진, 2014)라는 책은 제목자체가 우리에게 많은 시사를 안겨준다. 노들야학은 서울에서 언제나 장애인 운동의 중심에 서 있었다. 문맹상태에서 문해(文解)로 눈을 떠는 과정에서 거리의 운동(투쟁)이 먼저인지 교실의 수업(공부)이 먼저인지 하는 것은 장애인야학에서 끊임 없이 제기되는 갈등적인 질문이다. 하지만 이제 그들에게 이질문은 공허하게 들린다.

노들야학에서 운동이나 수업이냐는 양자택일은 질문이 되질 않는다. 질문자체가 잘못된 게다. 그들에게는 운동이 수업이고, 수업이 운동이다. 하나의 프락시스(praxis)일 뿐이다. 그럼에도 마지막 방점은 수업을 하는 데에 있다.

이 책의 에필로그에서 저자 홍은전은 노들야학에서 장애학생과의 만남을 이렇게 회고한다.

(당신은) '숨 쉬는 것 빼고는 모든 게 차별' 이라고, 30년을 집안에서만 갇혀서 수인(囚人)처럼 살아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만나서 했던 첫 번째 일은 바로 일상을 만드는 것이었지요. 지하철을 타고 학교를 다니고 친구를 만나 밥을 먹고 영화를 보는 그런 평범하고 눈부신 일상 말입니다. 그것은 또한 얼마나 지켜내기가 버겁던지요, 우리는 차별의 백만 가지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 하루하루들은 정말이지 온몸으로 밀어야만 겨우 가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말했지요.

"일상의 모든 현상이 교실이고 네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이 가장 훌륭한 교과서다. 'ㄱ, ㄴ' 을 가르치기 위해 때로는 그 사람의 인생 전체가 필요하다."

(중략) 얼마나 억눌린 게 많았던지 당신은 '미안하다' 는 말을 달고 살고 나는 '괜찮다' 는 말을 달고 살았었지요. "소리 질러도 괜찮아요, 울어도 괜찮아요, 싸워도 괜찮아요, 무서우면 같이 해요." (홍은전, 2014, pp.246-247)

노들야학 학생들에게 '말은 세상'(Word is world)이다. 세상을 향한 '말 걸기'가 그들의 운동이자 수업이다. 하여 "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업합시다"가 노들야학 20년의 열쇠 말이 된 게다. 이계삼 선생은 이 책을 우리들에게 추천하는 글을 이렇게 맺는다.

희망과 절망 사이, 시도와 패배 사이, 엇갈리는 오해들과 일치의 기억까지 끝없는 망망대해를 노 저어 가던 모든 과정이 그들의 수업이었다. 장작불 같은 학교, 먼저 붙은 나무토막이 불씨가 되었고, 빨리 붙은 장작은 밀불이 되고 젖은 놈은 마른 놈 곁에 몸을 맞대어 활활 타올라 끝내 씻덩이를 녹여 나가는 노들의 나날, 교육은 교육 바깥에서 희망이 되었다. 노들처럼 살고 노들처럼 투쟁하는 곳에 그 고색창연한 이름, '교육' 이 있었다(『오늘의 교육』 편집위원 이계삼).

그는 노들의 수업을 "끝없는 망망대해를 노 저어 가는 과정"이랬다. 그리고 노들야학은 '장작불' 같은 학교였다. 모든 아이들에게는 교육가능성이 내장(內藏)되어 있듯이 모든 장작은 타게 되어 있지만, 먼저 불붙은 토막이 불씨가 되어 장작의 밀불이 되어야 젖은 나무까지 활활 타게 한다. 노들에는 꺼지지 않는 불씨로서 소중한

밑불이 있어 젖은 장작까지 타게 한다. 노들의 밑불은 선생이기도 하고, 먼저 깨친 학생이기도 하다. 하여 노들의 교사-학생은 가르치면서 배우고 배우면서 가르친다. 이런 장애야학의 교육은 들불처럼 제도권 학교교육에까지 번져 가야한다. 아웃사이드가 인사이드의 희망이 되는 바로 그 곳에 고색창연한 본래의 '교육'이 있었다는 게다. 그 본래의 교육은 이미 『중용』 첫 머리에 하늘의 지엄한 명령으로 우리들에게 진즉에 제기되어 있다.

필자가 보기에 노들장애인야학 교육은 우리나라에서 장애학 담론과 특수교육 실천이 만나 시너지 효과를 입증한 살아 있는 역사의 사례다. 노들야학과 장애인 차별 철폐를 온몸으로 이끌어 온 노들(노란 들판)의 박경석 교장은 일간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한다.

장애인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하려면 자본주의적인 삶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 실제로 우리는 사회적으로 "쓸모 있는 사람" 이 되어야 한다고 배웠다. '쓸모' 를 기준으로 보면 중증발달장애나 정신지체장애인들한테는 기대할 게 없다. 우린 가장 간편한 방식으로 사람을 '처리' 해 온 거다. '투자 가치' 가 없다는 이유로, 어떤 장애인들은 생애에 걸쳐 갇혀 살고 어떤 기회나 선택권도 없이 사회적으로 그렇게 '폐기처분' 되어왔다(한겨레, 2014.10.18, 21면).

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로서 "장애해방을 위해 자본주의적인 삶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는 박경석의 문제제기는 담대하다. '쓸모'를 기준으로 사람을 간단히 '처리'('격리'를 포함해서)하는 당대 사회에서 장애인은 '폐기처분'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그는 고발한다. 철벽처럼 '사회화되어 가는 장애'의 벽을 어떻게 허물 것인가? 그 벽이 허물어지는 날을 아직은 기약하기 어렵지만, 그 일에 대드는 사람이 우선 늘어나야 한다. 스물넷에 중도장애인이 된 박경석은 『지금이 나는 더 행복하다』(2013)고 했다. 고단한 거리의 삶이지만, 장애해방을 위해 투쟁하는 동안 그는 행복했다. 어느 듯 50대 중반을 넘어서는 그도 이제 좀 쉴 수 있어야 한다. 그가 맘 놓고 쉬게 하는 것은 어정쩡하게 살아가는 열의 아홉인 우리들 몫이다.

4. 장애학과 특수교육의 상생적 만남은 대구에서 질라라비장애인야학과 한사랑에서도 꽃처럼 피어나고 있다. 장애인 야학의 사례는 위에서 말한 노들야학으로 대신하고, 여기서는 「한사랑장애전담어린이집」(이사장: 윤문주)이 주축이 되어 이끌어 온 희망의 '마을공동체' 사례를 든다.²⁾

2) 대구 안심지역을 중심으로 한 마을공동체 이야기는 「한사랑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주최한 정책세미나 "장애인인과 함께하는 마을공동체의 삶" (2014.10.31)의 주제발표(김병하)에 보고되어 있다. 이 발표를 요약한 글이 『녹색평론』 (2015.3-4월호, 141권. pp.31-45)에 게재되었다.

우연인지 필연인지 대구에는 특수교사이면서 별난 운동가인 사람이 더러 있다. 이들은 특수교사로 제도권 안에서 양지가 보장되는 삶을 마다하고 특수교육의 혜택을 제때에 받지 못하는 장애유아들을 위해 읍지에서 「한사랑 어린이집」을 열었다. 그게 약 20년 전 일이다. 광복 직후에 대구 서쪽 끝자락 대명동에서 이영식(李永植; 1894-1981) 목사가 분리교육으로 특수학교의 깃발을 꽂았다면, 그로부터 약 50년 뒤 대구 동쪽 끝자락에는 몇 사람의 뜻이 밀알이 되어 가정 형편이 어려운 ‘장애유아 전문 어린이집’을 출범 시켰다. 당시만 해도 취학전 장애유아에 대한 교육권 보장에 대해 우리나라에서는 글과 말로만 문제제기할 즈음이었다. 「한사랑」 발기인 윤문주(2014)는 「한사랑 어린이집」 설립 동기를 이렇게 밝힌다.

장애아동 조기교육에 대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시대적 상황 속에서 그에 따르는 과중한 교육비가 장애아동 가정에 부담 지워지며 발생하게 된 부모 자살사건, 장애인 시설에서 일어나는 반인권적 행태 등 장애로 인해 소외당하는 장애인의 삶에 대한 고민과 빈민장애가정의 아동양육과 교육에 대한 고민이 대구대 특수교육과 졸업생 및 학과생 후원인들이 모여 ‘한사랑 어린이집’을 설립하게 되었다(윤문주, 2014).

특수교육과를 졸업하기만 하면 특수학교(급) 교사로 임용이 100% 보장되던 호 시절에 양지를 마다하고 읍지의 저소득층 장애아동 조기교육에 눈길을 돌려, 그 험난한 길을 닦아 온 게 오늘의 「한사랑」이다. 이런 뜻이 모여 자생적으로 안심지역 저소득층 장애아동의 조기교육을 위한 ‘장애전담 어린이집’으로 출범한 「한사랑」 출신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감에 따라, 방과 후에 그들을 맡아 지도할 장애청소년학교를 2000년 3월 아양(峨洋)교 부근에 열었다. 그것이 기틀이 되어 ‘아양교’ 부근은 장애청소년들의 놀이터이자 삶의 터가 되었다.

우연치 않게도 이런 게 기틀이 되어 2천 년대에 접어들면서 아양교 근처 그곳에서 「장애인지역공동체」가 결성되었다. 이 「장지공」의 실천사업으로 학교 문앞에도 가보지 못한 장애성인들을 대상으로 「질라라비장애인야학」이 대구에서 처음 문을 연 곳도 아양교 부근 그곳이다. 이때부터 그곳은 대구에서 ‘장애인운동’의 산실이자 요람이 되었다. 장애인운동의 주체로 다시 아양교 근처 그곳에는 장애인당사자 중심주의를 내걸고 「대구장애인연맹(대구DPI)」을 결성(2003.12)하였다.

그 무렵 아양교역 지하철 직원들과 질라라비장애인야학 학생들과는 이런저런 충돌도 많았지만, 지금은 대구에서 장애인들에게 이동권 편의를 가장 친절하게 지원해주는 곳이 아양교 지하철역이란다. 당시에는 격주로 토요일 오후에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 중심으로 “함께 살아도 될까요?”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극장, 운동장, 박물관 등을 돌며 문화탐방 기회를 조심스레 펼쳤다. 그러나 지금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 당당하게 ‘장애의 벽’을 허물어 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운동의 주류는 신체장애인 중심으로, 휠체어 부대가 그 선발대가 되어 여기까지 왔다. 장애인운동이라지만, 사실 장애영역의 특수성에 따라 그 요구와 목소리는 천차만별이다. 장애학 담론에서는 장애인운동을 ‘모자이크식’ 운동이라 했다. 이를테면 같은 감각장애이지만 농인들이 요구하는 권리주장과 맹인들이 요구하는 주장은 서로 아무런 관련이 없을 만큼 다르다. 감각장애인과 신체장애인은 당사자가 직접 나서서 ‘당사자배제불가’를 외치고 나설 수 있지만 발달장애인들의 경우 당장 그게 어렵거나 꽤 제한적이다. 그렇다고 불가능하다고 처음부터 단정하지 말자. 때문에 이들의 경우 제2당사자로서 부모운동이 적극 뒷받침되어 왔다. 그러나 대리인이 곧 당사자 주체일 수는 없다. 이런 자각에서 제기된 것이 발달장애인의 ‘자기권리 주장’ 혹은 ‘피플 퍼스트’(People First) 운동이다.

밥 먹는 이야기 아무리 해봤자 허기진 배를 채울 수 없다. 문제는 직접 밥을 떠 먹어야 한다. 해서 「한사랑」은 2013년 ‘발달장애인자립지원센터’를 직접 운영하기에 이르렀고, 이듬해에는 “지적·자폐성 장애인의 자기권리 주장과 자립생활”을 주제로 세미나(2013.9.28)를 개최하고, 발달장애인들도 “말할 수 있는 힘과 권리”가 있음을 실제로 시연(試演)해 보였다. 「한사랑어린이집」은 안심지역에 뿌리를 틀어 지금 여기까지 왔기에 이곳을 거쳐 간 발달장애인들도 이곳 ‘안심’(安心)에서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한사랑」의 존재이유이자 지역 주민들의 차마 어찌지 못하는 책무가 되기에 이르렀다. 지금 안심지역에서는 ‘안심형’(安心型) 마을공동체가 이런저런 모습으로 형성되어 가고 있다.

안심지역 마을공동체는 공동체로서 하나의 네트워크가 씨줄과 날줄로 직조(織造)되어가고 있다. 이곳에서 「한사랑」은 2008년부터 안심지역 중심으로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한 마을사업을 적극 추진하였다. 먼저 10분 안에 걸어나는 「아띠도서관」을 개관하고, 2010년 살기 좋은 안심 만들기 사회적협동조합 동행의 미션으로 「동구행복 네트워크」가 결성되었고, 2012년에는 마을 사람들과 발달장애 청년들이 함께 참여하고 운영하는 마을카페 「사람이야기」가 문을 열었다. 같은 무렵에 안심주민 생활협동조합 마켓 형태로 「땅이야기」가 「사람이야기」와 나란히 문을 열었다. 2013년에는 민간주도형 주민자치사업의 일환으로 방과 후 마을학교인 「동지」가 탄생하였다. 이곳 「동지」에도 발달장애아동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이 외에도 안심지역 마을공동체로 「마을에서 꿈꾸는 사람들」, 「대동계」, 「울하아나바다」, 도시락과 밑반찬을 공급하는 「웰도락」, 「달콤한 밥상」, 그리고 아파트 단지 유휴 공간을 활용한 「LH울하아나눔텃밭」 등이 운영되고 있다. 또, 발달장애인 공동가정 공간으로 「동해빌」과 「미르빌」에는 8명의 지적장애인이 공동생활가정을 꾸려 함께 살고 있다.

「한사랑발달장애인자립지원센터」에서 발간하는 발달장애인 자립생활매거진(2014.09)에는 동네에 살면서 직장 다니는 한사랑 공동생활가정 이야기를 이렇게

들려준다. “대구시 동구 신서동에 생활한지 4년 , 이제 동네의 주민이 되었습니다. 마트 장을 볼 때에도 웃으며 인사를 해주시고, 한동안 가지 않으면 안부도 묻고, 자주 가는 노래방은 갈 때마다 서비스를 콕콕 줍니다.” 매거진에는 공동생활 구성원마다 삶의 이야기를 생동감 있게 전해 준다.

평소 사회적 기업 활동에 호감을 가지고 일해 온 동구행복네트워크 「웰도락」이00 팀장은 제대로 된 음식을 주민들에게 공급해 보자는 취지로 이 일에 신명을 바치고 있다. ‘웰도락’에서 발달장애인 W씨는 함께 일하는 이(李) 팀장에게 형이라고 한다. W와 이 팀장의 관계 단면을 보자.

W에게 어제 저녁에 문자를 받았다. 초대를 하는 문자였다. 야구를 보러 가자고 했는데, 안 왔다고 비지기도 하고, ... (중략) W가 우리 집에 와서 술을 먹기도 하고, 금요일 일을 하다가 어디를 가자고 연락을 하기도 하고, 함께 치킨도 먹고, 다음 날 다시 일하고, 두세 번 같이 자고 하기도 했다. 웰도락이 정말 바쁠 때 같이 일을 하고, 술을 먹기도 하고, 함께 자기도 한다.

함께 일하는 관계에서 함께 살아가는 짝처럼 지나고 있다. 「제8요일」의 헤리(성공한 세일즈 강사)와 발달장애인 조지(다운증후군)와의 관계를 엮은 아름다운 영상을 떠올리게 한다. 어느 철학자가 “우리는 상대방에게 무엇인가 말해주고 싶어 할 만큼 충분히 다르지만, 서로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비슷하다.”고 했다. 얼 쇼리스(E. Shorris)는 『희망의 인문학』(2006)에서 우리는 일관성 쌍둥이는 아닐지라도 분명 좀 더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고 실천하는 영혼의 가족이라 했다.

이제 ‘한사랑’뿐만 아니라, 모든 특수학교는 ‘희망의 특수교육’을 끊임없이 실천하는 실험장이어야 한다. 이런 교육의 과정(the process of empowerment)을 통해 발달장애인은 보호의 대상에서 인권의 주체로, 마침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마당을 나온 암탉’³⁾처럼 우뚝 서게 된다.

5. 이상에서 우리는 서울 노들장애인야학의 교육실천과 대구 한사랑이 주축이 된 마을공동체를 통해 장애학과 특수교육의 상생적 만남 사례를 보았다. 이런 실천 사례가 전국으로 확산되게 하기 위해서는 전국의 특수학교(급)에서 ‘희망의 특수교육’을 실제로 구성해 가야한다. 그러기 위해 누가 나서야 하는가? 이제 공은 우리 특수교육(학)인들에게 넘어 온다. 먼저 대학에서 특수교육교사를 길러내는 교수들부터

3) 황선미(2000)의 『마당을 나온 암탉』은 우리에게 ‘주체적 삶’의 감동을 안겨주는 장편동화다. 이 작품은 알을 품어 병아리의 탄생을 보겠다는 소망을 굳게 가지고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일쌍’이라는 이름의 암탉이야기다. 일쌍은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양계장과 안전한 마당을 박차고 나와, 모진 가장자리의 삶을 견뎌낸 끝에 ‘크고 아름다운 날개’로 비상할 수 있었다.

‘장애’를 보는 관점에서 개인모델에서 사회모델로의 전환이 와야 한다. 그런 인식의 전환 연장선에서 장애의 개인모델과 사회모델을 회통·통섭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

일차적으로 교수가 달라져야 그들에 의해 길러지는 특수교육교사들의 의식변화가 온다. 이게 ‘교학상장’(敎學相長)의 순리다. 모든 장애학생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마당을 나온 암탉처럼 우뚝 서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일선에서 교사들에 의한 교육본질 복원이 즐기 있게 실천되어야 한다. 부디 우리 특수교육교사들 만이라도 교사에 의한 ‘역연금술’(逆鍊金術)의 함정에 빠져들지 말기 바란다. 하여 ‘희망의 특수교육’이 들불처럼 번져 가게 해야 한다.

콩 심은 데 콩 나듯, 의식 있는 교사 밑에 의식 있는 학생이 나온다. 우리에게 교육만이 희망이다. 이런 교육운동을 통해 사회적 비판의식과 자기 성찰적 지성이 내면화된 장애인이 늘어나고, 이들이 운동의 주류를 형성할 때 깨친 시민에 의해 강한 민주주의가 탄생하게 된다. 더딜지라도 이 길 뿐이다. 그날을 고대한다.

2015. 06. 07